송원고, 자사고 입학전형 성적제한 폐지

장점 사라져 내년 신입생 미달·재학생 전학 사태 우려

숭덕고는 자기주도 전형 고수…광주교육청 대응 주목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광주 송원고가 광주시교육청의 요구대로 신입생 모집 때 성적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자사고의 가장 큰 메리트인 성적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 신입생 미달과 재학생 전학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는 기존의 전형(내신 상위 30%)보다 한층 강화된 자기주도전형(면접)을 고수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자칫 신입생 선발을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송원고는 신입생 전형요강을 수정해 13일 교육청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상위 성적 30% 지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원고는 성적제한 규정을 30%에서 50%로 낮춰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했다. 이후 학교 측이 머뭇거리자 교육청은 교육감 직권 공고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고, 학교 측은 교육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송원고 전형요강은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14일 공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성적 제한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메리트'가 사라져 송원고의 신입생 모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면학 분위기가 깨질 것을 염려한 재학생들의 '전학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11년 자사고였던 보문고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재학생의 전학 사태도 이어져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한 사례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송원고 신입생 전형요강의 성적제한 규정이 바뀐데 따른 불이익이 학교에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송원고 사태는 봉합됐지만, 자사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가 교육청의 전형요강 수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숭덕고는 이날 신입생 전형 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은 14일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전형요강을 수정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숭덕고가 제출한 전형 방식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되 1단계에서 내신(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총 5개 과목) 180 만점에 출결(감점)을 합산해 개별점수를 매긴 뒤 성적순으로 정원의 1.5배(450명 안팎)을 선발한다. 이어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에다 면접(2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오히려 기존 전형요강(성적 제한 30%)보다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숭덕고 측은 "교육청이 승인권한으로 자율적 학교운영을 보장한 자사고에 개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전형요강 수정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까지 학교 측의 수정안을 기다릴 것"이라며 "만약 수정하지 않으면 교육감 직권으로 지난해 수준의 전형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교육혁명 촉구 대장정 '2014 교육혁명대장정 전국조직위원회'와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들이 1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대학입시 폐지, 무상교육 실현,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자사고 폐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평화맨션 안전점검 D 또는 E등급 '위험'

5월 자체 점검에선 B등급

A동 기둥서도 균열 발생

보강공사·재건축 여부 검토

최근 건물 지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광주 평화맨션이 중간 안전점검에서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D등급 또는 E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구조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사고 발생 이후 29일부터 보름간 60%가량 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인 A~E 등급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D 또는 E 등급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D등급 판정이 나면 보수·보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보강 공사와 재건축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 실효성을 검토하는 조치를 하게 되며 E등급의 경우에는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앞서 지난 5월 자체 점검에서는 B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술원은 사고가 난 B동 건물 기둥 2곳에서 콘크리트 타설 불량에 따른 철근 노출, 철근을 둘러싼 콘크리트 양 부족으로 인한 철근 부식, 콘크리트 박리 현상이 나타났으며 A동 역시 기둥 한 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등 B동과 유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과 대한건축학회 전남지회(지회장 염환석 교수) 주최로 지난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의 경우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이 1주간의 교육을 거치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정밀점검도 최저가 낙찰로 인해 진단결과에 신뢰성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20년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구조진단 전담부서 신설 등의 법령 개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종행기자 golee@

세월호 몇명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해경 항공구조요원들 '깜깜이 출동'

광주지법 세월호 공판

해경의 항공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출동한 항공 구조사들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다.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 구조사는 엄격한 이론·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 요원으로 해상 사고 시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임무를 맡는다. 증인들은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45)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한 뒤 "선내에 승객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항공구조사들은 "퇴선조치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퇴선 명령이나 방송만 있었다면 상황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종행기자golee@

세월호 일부 격실 서서히 붕괴…수색여건 악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13일 "세월호 일부 격실이 지난 5월부터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 수색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수색작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붕괴가 가속화돼 유실물이 쌓인 곳은 4층 선미 부분으로,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유실물을 제거해가며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팀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잠수사 44명을 투입, 수중수색을 실시했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전날인 12일 오후 3시40분께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에서 '세월호'라는 글씨가 표기된 주황색 구명동의 1점이 발견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 이날 127명을 투입해 3층 선미, 4층 선수·선미 다인실, 5층 선수를 집중수색할 예정이다. 해상수색은 함정 71척, 민간 선박 34척, 항공기 16대가 동원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국교육감협 사무소장에

박재성 두암중 교사 임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무소장에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을 지낸 박재성(58) 두암중 교사가 13일 임용됐다.

박 신임 소장은 4급 상당 장학관 보직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간 교육정책 네트워크 업무를 수행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박 소장은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지부장 등을 지냈다. 광주대동고·광주일고·광주여고·전남여고 교사를 거쳐 지난 2011년 3월부터 2년간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마터면…가스 '토치'로 집안 벌레 잡으려다 불 내

쌍나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가스 토치(Torch)로 집안에 있는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낸 50대 여성이 번지는 불길을 막으려다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

○…1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김모(여·51)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여수시 학동 A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토치를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냈다는 것.

○…김씨는 방안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어 신고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는데, 한 소방대원은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설명.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 건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무등 장례식장 사이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보2억 융4억5)
①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2층 상가건물
대지 205평 1층 100평(전용 70평)주택 2층 80평(전용 70평) 6칸
매가 2억5천 월 보증금 2천 월 200만원
②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③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 건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④ 커피숍 급매매(증심사 중심도로 1층)
1층임대 약 80평 시설완비 최고위치 성황리 영업중
식사 및 커피전문점
신한 010-6670-9800

동네 어르신들과 고객들을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시티옥사우나
새단장 오픈
(구)대중사우나
오픈행사
8.1~9.30까지
3만원 이용시 티켓 13매 무료
6만원 이용시 티켓 30매 무료
16만원 이용시 티켓 100매 무료
경품권 추첨
1위 세 탁 기 (30만원 상당)
2위 무료티켓 (10만원 상당)
3위 무료티켓 (6만원 상당)
직원 구함 남 여 각ㅇ명
대신시티빌딩
시티옥사우나
북구 우산동 518-80번지 안보회관 옆
062-527-6400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망좋음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정남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11억8천
(보2억 융3억)
월수익 900만
(1년 수익 1억1천)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후분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융1억2천)
대신
010-6832-9700

(주)대신경매 경매의 모든것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컨설팅 합니다.
건축분야·신축·설계·리모델링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근린시설
· 북구 매곡동 근린시설(토지1735㎡,건2303 ㎡) 감정 30억6, 최저21억(유통마트적합)
· 서구치평동 상무지구 근린시설(토지1599㎡,건17380 ㎡) 감정 223억, 최저223억(상무지구 중심가)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토지4756㎡,건1478㎡) 감정 276억,최저276억(상무지구)
· 북구 신안동 근린시설(토지951㎡,건2652㎡) 감정 26억, 최저11억(신안사거리 대로변)
· 북구 오치동 근린시설(토지338㎡,건659㎡) 감정 5억, 최저5억(오치대로변)
· 동구 대인동 근린시설(토지780㎡,건1992㎡) 감정 24억, 최저17억(대인동 대로변)
근린주택
·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토지112㎡,건200㎡) 감정 3억8천, 최저1억1천(두암동)
· 북구 유동 근린주택(토지229㎡,건608㎡) 감정 1억6천, 최저2억6천(유동 대로변)
· 동구 충장로 근린주택(토지155㎡,건454㎡) 감정 3억4천, 최저1억9천(충장로 530코너)
· 북구 오치 근린주택(토지69㎡,건114㎡) 감정 1억6천,최저7천4백(오치동)
· 북구 운암동 근린주택(토지69㎡,건114㎡) 감정 7천2백, 최저5천(운암동)
· 북구 신안동 근린주택(토지138.8㎡,건202㎡) 감정 2억4천, 최저1억7천(신안동)
호텔
· 광산구 쌍암동 호텔(토지1182㎡,건2289㎡) 감정 32억, 최저22억(쌍암동 코너)
대지
· 동구계림동 대지(토지511㎡) 감정 6억9천, 최저3억8천(광주고앞 공터)
· 광산구 소촌동 대지(토지1956㎡) 감정 20억, 최저14억(광속간도로, 송정역 부근)
경매 직원구함, 부동산 직원구함
경매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하실분/사무실 공동사용/공동투자가능합니다.
(경매, 부동산 컨설팅, 건설, 시항, 설계, 부동관련 전체를 취급합니다)
커피숍 급매매(증심사 등산로 중심도로 접)
보3천 월300만 시설비 별도 최고시설
(주)대신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①수완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뒤,모아엘가A 상가앞) 매가3억5천(보3천 융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②수완지구 상가 매매 3층(엠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서 하남 공단 쪽)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융9천)
③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8층중 2층) 62평(부영APT앞)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융9천)
④나주시 삼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2억5천(토지205평 건135평 융1억2천)
⑤북구 산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⑥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대340, 전 50 주택 2채 매가 3억1천)
①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온천역 1번 출구 2분(올수리 전제제품 신규교체,임대완료,주인거주가능)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융1천)
②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연)(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앞) 30평 매가 1억8천 할인가 → 1억5천(융 6천가능)
③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④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①15평(수림)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②10평(수림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⑤북구 우산동 사우나 건물 7층 (대96, 건564) 수익 900 매11억
⑥광산구 오룡동 8층 건물(대500건, 건 700) 1층 상가 120평 룸 58개 월수익 2500 매가 35억
⑦신축원룸 4층 북구 용봉지구 룸 21개 월수익 800(1층상가 2, 4층 주인주택) 매가 11억8천
⑧신축원룸 4층 북구 중흥동(전대정문 2분) 룸 12(1층 점포1칸, 4층 주택) 월수익 500 매가 6억7천
신한 062-521-1060